

복음서 저자들의  
유태적 시각으로 예수 새로 보기



존 S. 스펙 지음 / 최중수 옮김

# 예수를

2000년 동안의 오해로부터

# 해방시켜라

한국기독교연구소

한아름 공부반용

외부 반출 금지

2000년 동안의 오해로부터  
예수를 해방시켜라

*Librating the Gospels: Reading the Bible with Jewish Eyes—*

*Freeing Jesus From 2000 Years of Misunderstanding*

by John Shelby Spong

옮긴이/최종수   펴낸이/김준우

초판 펴낸날/2004년 5월 20일   넌곳/한국기독교연구소

<>제10장<>

## 10장 사도행전과 요한복음서

### 아주 간단히 살펴보기

이처럼 마가, 마태, 누가복음서 등 공관복음서가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가를 분석하는 일은 분명히 신약성서의 내용을 전부 다 다룬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런 분석은 신약성서 전체를 읽을 한 관점을 제공한다. 다른 무엇보다도 이런 분석은 우리로 하여금 신약성서의 유대적 차원을 직시하게 해주는데, 단순히 신약성서 안에 그런 차원이 존재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이야기를 극적으로 형성시켜주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것은 성서 각 구절 속에 있는 유대적 내용을 발견하게 해 준다. 만일 우리가 신약성서의 다른 부분, 이를테면 바울서신이나 유사 바울서신, 일반 서신과 히브리서 같은 서신에 관심의 초점을 맞출 때에도 똑같은 통찰이 분명해진다.<sup>1)</sup> 그러나 그 서신들의 역사적 무대를 찾아보거나, 이 기독교 전승의 유대적 성격을 알아보는 것은 이 책 범위 밖의 일이다.

1세기 후반의 으뜸가는 기독교 묵시문학 작품인 요한계시록을 다루는 일도 마찬가지다. 서구문명이 그 진로를 제 3 밀레니엄을 향하여 나아가는 동안, 요한계시록에 대해 커다란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즉 사람들 사이에 엄청난 공포심을 불러일으킬 목적으로 세상종말을 예언함으로써 부정거래를 하는 종교 협잡꾼들이 요상한 문자주의를 가지고 그것을 자주 인용할 것이다. 왜냐하면 엉터리 종교 협잡꾼들이 자기 이익을 위하여 청중들을 교묘히 조작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종교적으로 착색된 공포심이기 때문이다. 나는 언제나 세상종말을 설교하는 자들이 인간 제멋대로 만든 계수체계(counting system)를 가지고 1000년이다, 2000년이다 법석을 떨며, 제 맘대로 잡은 날자가 어쨌든 하나님과 세상을 위한 신적 계획에 깊은 뜻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의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보고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이 점은 특별히 가장 높이 인정받는 자료들을 다 모아 가지고 가장 최상의 추측을 내릴 경우, 예수가 태어난 것은 기원전 8년에서 4년쯤 된다고 하는 것을 볼 때 더욱 그렇다(서기 1000년이다, 2000년이다 하는 것이 실제로 예수 탄생 연도와는 차이가 있기에 더욱 어이가 없다는 말. 역사주). 물론 이 말은 우리가 얼마 전에 제 3 밀레니엄으로 진입하였다는 것을 아무도 의식하지 못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이 천년(millennium)에 대한 관심을 끌게 될 것이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책에서 그런 것에 관심을 보이고 싶은 유혹을 완강히 거부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비록 기독교의 정경문서들 가운데 그 책들이 요구하는 만큼 큰 관심을 가지고 다 다룰 수는 없다 해도, 무시할 수 없는 책이 두 권 남아 있다. 물론 이 두 책은 사도행전과 요한복음서이다. 이 책들은 나의 이 연구 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나의 주 임무를 그저 살짝 스쳐 가는 정도일 뿐이다. 두 책이 다 100년경에 나온 작품일 가능성이 크다. 내가 분명히 아는 것은 사도행전과 요한복음 둘 다 완고한 정통 유대인들과, 일반 유대인은 물론 이방인들과 혼합으로 이루어진 기독교 예배공동체 사이를 점점 더 갈라놓던 긴장감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두 책이 다 지금 여기서 다루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대우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내가 관심을 조금밖에 기울일 수 없어서 내 임무를 충실히 다 담당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해 준다. 그래서 비록 내용을

전부 다루지는 않는다 해도, 전체 문맥을 제시할 필요에서 사도행전과 요한복음을 이 연구에 포함시켜 그저 잠깐 가볍게 스쳐 지나가려고 한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을 기록한 같은 저자가 쓴 것이다. 말하자면 일종의 누가복음서 제 2권이라고 할 수 있는 자매편 노릇을 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나는 먼저 사도행전에 관심을 두려고 한다.

나는 본래 사도행전이 우리가 이미 누가복음서 안에서 발견한 아주 유사한 모델 위에서 기록되고 구성되었다는 것을 믿는다.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도 안식일/주일 예배 때 낭독하기 위하여 고안된 성서일과였다. 우리가 추정하는 사도행전 기록 연대가 약 90-95년이 정확하다면, 그것은 교회와 회당이 분리되던 기간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새로 독립한 기독교회의 점점 늘어가던 전례적 필요를 충족시켰던 것이다.

우리가 이미 주목한 것과 같이, 전통적인 회당 전례(예배)에서는 안식일마다 적어도 세 개의 성서일과를 낭독하였다. 가장 본질적인 것은 토라에서 읽는 것이고, 다음에는 성문서 가운데 전기예언서에서 낭독하는 것이 있었고, 일반적으로 세 번째 읽을거리는 이른바 유태인의 후기예언서에서 낭독하였다. 그러나 회당이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서 점점 더 멀리 밖으로 이동해 감에 따라, 유대 조국의 전통적인 실천관행으로부터 멀어지면서 토라를 제외하고는 나중 두 가지 읽을거리의 흥미도 떨어지게 되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이 두 가지 읽을거리는 예배에서 극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즉 후기 예언서(이사야에서 말라기서까지는) 고작 4년 주기로 낭독하게 되었고, 심지어 그런 낭독 주기에서조차, 회당에 따라서는 에스겔서를 무시하기까지 하였다.

한편, 전기 예언서(여호수아에서 열왕기 상 하서까지는) 이제 기독교회를 따로 구성하게 된 헬라화한 유태인과 이방인들에게 점점 더 타당성이 없게 된 것 같다. 이 전기 예언서 재료는 원래 모세가 죽은 뒤 유대 백성들의 역사를 추적한 것이다. 그 재료는 여호수아의 영도 밑에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야기와, 사사기에 반영된 것처럼 동맹체제가 흔들리고 있던 시기의 이야기를 다시 말하고 있다. 이 재료는 사무엘이라는 존경받는 사사의 황혼기에 발생한 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요구가 점점 높아가던 때의 이야기에서 절정을 이룬다. 그런 다음에 전기 예언서는 유대인 왕국의 역사를 기록한다. 그것은 첫째 왕 사울의 이야기를 말한다. 그 다음 다윗과 솔로몬 왕가의 성공적 통치, 즉 유대인 역사의 황금시기에 대하여 길게 자세히 적고 있다. 솔로몬이 죽은 뒤, 나라가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 두 나라로 쪼개져서 서로 싸우는 두 왕국 이야기를 기록한다. 마침내 서기전 721년 앗시리아 사람들 손에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한 것과, 뒤에 598년에 바벨론이 유다 왕국을 함락한 것을 다시 말하고 있다. 기독교 역사에서 토라 주위를 맴돌던 광채(aura)가 한 세기 이상 계속되는 동안, 회당 예배 전통 가운데 두 번째 읽을거리를 구성해 주던 부분, 즉 유대인 역사에 대한 이 읽을거리가 기독교 모임에서 그 호소력을 잃기 시작하였다는 사실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 “모세가 아니라 예수가 이 새로운 신앙전통의 창시자이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유태인들의 창시자가 죽은 뒤의 유태인의 경험을 서술하는 이 두 번째 읽을거리를 우리의 창시자 예수가 죽은 후의 기독교인들의 진귀한 체험과 운동에 대한 서술로 대신할 수 없단 말인가?” 언제나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인 까닭에, 이런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결국 그 책을 기록하여야 할 필요성을 만들어 내게 된 것이다.

누가야말로 그 저작의 후보자였다. 왜냐하면 누가는 다른 복음서 저자들보다도 예수를 산출해 낸 유태인의 과거와, 예수가 속해 있다고 누가가 분명하게 믿었던 이방인의 미래 사이의 접촉점에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 누가복음서와 사도행전이 원래 한 작품의 두 부분으로 함께 기록되었는지, 아니면 두 작품 사이에 일정기간(내 추측에 그 기간은 기껏 5년을 넘지 못한다)이 경과하였는지는 아무도 확실하게 말할 수 없다. 그러나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사도행전이 의심할 여지없이 여러 점에서 누가복음서와 병행을 이루어 기록되었다는 점이다. 나아가서

누가복음서가 한 해 동안 안식일/주일 예배에서 순서에 따라 낭독될 성서일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사도행전도 같은 목적을 가지고 기록되었다는 것을 의심할 이유가 없다. 사도행전은 실제로 예배력에 맞게 고안되었다는 내적인 증거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주장을 내세우기 위하여, 첫째로 명백한 증거를 열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도행전은 누가나 마태와 거의 같은 길이를 가지고 있다. 그 책들이 모두 한 주에 한 성서일과씩 마련해 줄뿐만 아니라, 유대 예배력의 축제일과 금식일을 명시해 주는 읽을거리들을 마련해주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길이는 이 책이 성서일과서라는 생각을 위해 적격이다. 초기 사본에 사도행전이 52 일과로 나뉘어 있다는 사실은 이런 주장을 더 강화해 준다. 즉 52 일과는 유대력을 태양력과 조화시키려 할 때 추가된 날들과 맞추기에도 넉넉한 융통성을 가지고 유대력 안식일마다 한 일과씩 마련해 주었다. 그리고 이렇게 추가된 날을 가지고 유대력은 어둠과 빛의 연례주기와 비교적 꾸준한 보조를 맞출 수 있었다.<sup>2)</sup>

둘째로 사도행전 처음에 유대인들의 대 명절 하나를 언급하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 있다. 사도행전은 교회 생활 가운데 성령강림 이야기를 오순절(Pentecost) 축하행사의 중요한 주제로 구성하였다. 우리는 이미 누가복음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런 오순절 이해를 만날 수 있었다. 즉 유대인들에게 오순절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것을 기념하는 명절이었고, 유월절이 지난 뒤 50일째 되는 날에 지켰다. 마태는 유대인적 상황에서 그의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이런 유대적 인도를 따랐고 오순절 읽을거리로 산상설교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반대로 누가는 유대인에게 율법이 중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기독교인에게는 성령이 중요하다는 것을 믿었다. 그래서 누가는 산상설교 재료를 자기 복음서 다른 곳에 사용하고, 자기 뒤에 오시는 이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라고 선언하는 세례요한 이야기(눅 3:16)를 자기 복음서의 오순절 이야기로 삼았다. 누가는 분명히 자기 복음서에서 사도행전의 성령강림 이야기를 예상하고 있었다. 따라서 그 1세기 후반 기독교 공동체의 예배생활 가운데 사도행전에 있는 성령강림 이야기와 나란히 누가복음의 이 부분 이야기를 낭독하였다는 것을 쉽게 상상할 수 있다. 진실로 성령으로 말미암는 예수의 세례는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는 교회의 세례와 병행된다. 만일 그런 전례적 연결이 쉽게 이루어 질 수 있다면, 이런 통찰로 장비를 갖추고 우리는 다른 것을 찾아야 한다. 그것을 찾아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누가복음서는 예수가 잉태된 이야기로 시작되었다. 그것은 예수가 새로운 영역으로 진입한 순간인데, 거기서 그는 구원을 가져올 사람으로서 그의 목적을 달성할 것이다. 누가가 보기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진입 지점이다. 사도행전에서는 예수의 승천 이야기가 그가 잉태되었다는 것과 병행되었고, 극적인 드라마를 개시하였다. 승천은 또한 새로운 영역으로 진입한 순간이었고, 거기서 예수는 그의 목적을 새롭게 성취하기 위하여 제한의 장벽을 헐고, 따라서 보편적으로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게 하였다. 오직 누가만 예수의 어머니가 이 두 번째 진입 현장에 있었다고 한 것은 흥미롭다(행 1:14).

누가복음서에 예수의 세례와 시험받은 이야기 뒤에, 누가는 예수가 고향 나사렛에서 배척받은 이야기를 가지고 출애굽기에 해당하는 부분을 시작하였다. 그 이야기에 보면, 예수가 고향 나사렛에 돌아왔을 때 그의 고향 사람들의 반응은 처음에 상당히 호의적이었다(눅 4:20-22). 예수는 자기를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으로 선포하였다. 그는 예언자 이사야의 말을 가지고 이런 주장을 합리화하였다(사 61:1-2). 이것과 상응하는 사도행전 부분에서 우리는 기독교회가 예루살렘에 있는 그 고향집에 왔을 때 처음 반응도 마찬가지로 호의적이었다(행 2:37). 예수가 나사렛에서 했던 것과 똑같이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설교하였다(행 2:17-36). 예수처럼 베드로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으로 설교한다고 주장하였다. 예수와 똑같이 베드로도 예언자들 가운데 한 사람의 말을 가지고 이런 주장을 합리화

였다(눅 2:17-21, 욥 2:28-32). 예수는 고향 땅에서 쫓겨나 그 동네가 있었던 산 벼랑까지 끌고 가서 밀어 떨어뜨려 죽이려 하였다(눅 4:19). 베드로는 체포되어 구금되었다(행 4:3-4).

예수나 베드로 두 경우 다 도망칠 수 있었는데, 그것이 애매모호하다. 예수는 단순히 “그들의 한 가운데를 지나서 자기의 갈 길을 가셨다”고 한다(눅 4:30). 베드로는 유죄라는 것이 밝혀졌지만, 그런데도 놓여났는데 그 이유는 그의 놀라운 기적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다 아는 터”였기 때문이라고 한다(행 4:16). 두 이야기가 다 현안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에는 제한이 없고, 따라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구원에 환영받아야 한다는 메시지가 분명하다는 것이었다(눅 4:25-27, 행 2:1-13).

누가복음서의 예수나 사도행전의 베드로 사이의 병행되는 점들은 그 뒤에도 계속된다. 즉 복음서의 예수는 무리를 먹이심으로써 사람들의 거부 가능성을 일단 멈추게 하였다(눅 9:10-17). 사도행전의 베드로는 과부들에게 식량을 공급함으로써 “헬라 사람들”의 거부 가능성을 일단 멈추게 하였다(행 6:1-6). 예수는 자기를 돕도록 70인을 임명한다(눅 10:1-12). 베드로는 자기를 돕도록 일곱 사람을 임명한다(행 6:5-6). 누가복음서에는 헤롯이 예수를 갈릴리에서 내쫓는다(눅 10:31-35). 사도행전에서는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려 하였다(행 12:1-3).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사명을 완수하는 데 실패하였다는 것이 누가 10장에서 12장에 걸친 중요 주제였다. 교회가 이스라엘에 대한 실망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이 사도행전 8장에서 13장에 걸쳐 주요 주제였다. 누가복음서의 예수는 니느웨의 이방인들에게 설교하러 간 예언자 요나에 대하여 언급한다(눅 11:30).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는 부활한 그리스도를 대표하여 요나의 출발지였던 옴바로부터 위험을 무릅쓰고 앞으로 나아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세례를 주기 위하여 마침내 교회의 이방인 선교가 시작되게 하였다. 어느 누구도 이런 모든 접촉점이 우연의 일치라고 결론 내릴 수 없다. 누가복음서는 예수가 유태인의 성서를 성취하신 분이라고 한다. 사도행전은 그리스도 체험을 온 세상과 나누는 방식을 말하고 있다.

베드로가 아니라 바울이 지배적인 사도행전의 정점을 이루는 장들 가운데(행 20장-28장) 바울 역시 예수의 생애의 정점 사건들을 재연하는 사람으로 묘사되었다. 다시 또 한 번, 이것도 단순히 우연의 일치라고 할 수 없는 어떤 규칙성을 띄고 일어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거듭 사도행전도 누가복음서와 함께 나란히 서서 낭독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는 매우 폭넓은 암시를 가지고 있다.

예수와 바울 둘 다 고난이 따르는 운명을 맞이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긴 여행을 하였다(눅 9:51-18:43, 행 19:21-21:16). 예수는 다락방에서(눅 22장), 바울은 밀레도에서(행 20:17이하) 두 사람 다 각각 고별설교를 하였다. 두 사람 다 자기들의 죽음을 예언하였다(눅 18:32, 행 21:10이하). 두 사람 다 하나님의 뜻을 복종한 사람으로 그려져 있다(눅 22:42, 행 21:14). 두 사람 다 그들을 죽이라고 요청하는 무리들이 있었다(눅 23:18, 행 21:28). 두 사람 다 국가 대표자들로부터 죄 없다고 간주되었다(눅 23:4, 행 26:31). 두 사람 다 똑같은 수의 재판관을 받았다. 예수는 처음에 산헤드린 앞에서(눅 22:66), 그리고 다음에 빌라도(눅 23:1)와 헤롯(눅 23:8) 앞에서, 그리고 다시 빌라도(눅 23:13) 앞에서 재판관을 받았다. 한편 바울은 처음에 산헤드린 앞에서(행 23장), 그 다음에는 벨릭스(행 24장)와 베스도(행 25장) 앞에서, 그리고 헤롯 앞에서(행 26장) 재판관을 받았다. 두 사람 다 마지막 만찬을 들었다(눅 22:14-27, 행 27:35). 비록 예수는 십자가에서(눅 23장), 그리고 바울은 깊은 바다 속에서 파선이라는 상징적 죽음을 겪었지만(행 27:39-44), 두 사람 다 죽음을 겪었다. 두 사람 다 3일만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는데, 예수는 무덤에서(눅 24:1이하), 그리고 바울은 바다에서 살아남은 뒤 회복하는 데 3일이 걸렸다(행 28:7). 마침내 두 사람 다 약속된 땅에 이르렀다. 즉 예수는 하늘로 올라감으로써(눅 24:5-53), 바울은 목적지 로마에 도착함으로써(행 28:16) 그랬던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누가복음서에서 발견했던 것과 똑같이 사도행전에 있는 많은 일화들을 기록할 때 기억이나 입에

서 나온 말로부터 기록한 것이 아니라, 히브리 성서에 있는 본문을 미드라쉬적으로 기록했다는 명제를 지지해 주는 자료가 있다. 예를 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행 5:1-11)는 예레미야서에 있는 아나니아 이야기(렘 28:15-17)와 관련된 것처럼 보인다. 빌립으로부터 전도 받은 에티오피아 내시 이야기(행 8:26-40)도 분명히 성서에 언급된 단 하나 다른 에티오피아 사람 이야기(렘 38:7-13)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다. 그의 이름은 에벳벨렉이었는데,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그 사람도 내시였다. 심지어 다마스쿠스 도상의 이야기와 그 극적인 이야기 가운데 영웅 역을 맡은 아나니아 이야기도 어느 누구든지 바울의 문헌 그 어디에도 이런 경험이나 이런 사람에 대하여 언급된 적이 없다는 것을 인식할 때, 그 역사성에 대하여 의심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계속 그 반증자료들을 찾아낼 수 있지만, 그것으로도 사도행전에 얽혀있는 문자주의에 도전하는 데 넉넉한 것이다. 그리고 사도행전 역시 유대인의 눈을 통하여 미드라쉬적으로 기록된 성서일과로서, 복음서 읽기와 병행하여 나란히 보완하여 읽을 때에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성서일과로 보고, 또 예배드릴 때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 읽기를 대신해 줄 읽을거리를 마련하기 위해 고안된 누가복음서의 자매편으로 보게 되면, 또 다른 흥미로운 통찰들이 생겨난다. 여러 세기를 두고 사람들이 사도행전 이야기를 역사로 읽을 때 너무나도 이상스럽게 보이는 일들에 대하여 의심을 품어 왔다. 사도행전은 유별난 방식으로 끝맺는다. 즉 사도행전은 아마 바울이 죽은 지 적어도 30년 뒤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사도행전에 바울의 죽음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마지막 장이 어떻게 해서 없어진 미완성 작품이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것은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여 셋방을 얻어듣고 방해받지 않고 만 2년 동안 주님 예수에 대하여 가르쳤다는 이야기로 끝을 맺었다. 그리고 그 지점에서 사도행전이 딱 멈추었다. 그러나 바울이 그의 약속된 땅 로마에 도착한 것을 예수가 그의 약속된 땅 하늘로 올라간 것을 포함하여 예수의 생애의 마지막 사건들과 나란히 두려고 고안된 것이었다면, 이 지점에서 사도행전을 끝맺음한 것은 논리적이고 또 일관성 있는 것이다. 그 밖에도 예배력이 끝나면 성서일과도 끝나게 되어 있다.

폭풍을 만나 배가 과선된 이야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다는 불평에 대하여 성서일과 이론은 바울의 수난을 설명하는 사도행전의 이 부분은 예수의 수난과 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길이에 대하여 꽤 이해할 만한 것이다. 사도행전은 고난주간 복음서 읽을거리와 병행하는 넉넉한 자료를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또한 사도행전에 바울의 재판 이야기가 지겹게도 반복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그러나 바울이 재판을 네 번이나 받았다는 것은 예수가 네 번 재판 받았다는 것과 병행시키기 위하여 고안된 것이라면, 그 역시 이해할 만한 것이다.

사도행전이 빌립과 베드로를 떠난 뒤로 그들은 바울이 지난 길에 마주칠 때까지 사도행전 이야기 가운데 다시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말이 있었을 때, 누가복음서에 예수가 갈릴리를 떠난 뒤로 다시는 그곳으로 되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오직 누가에만 다른 복음서 저자와 달리, 부활 이야기나 부활하신 분이 갈릴리에 등장시키지 않았다는 것을 정말 주목하기 바란다. 누가는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처음에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다음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세상 끝까지 전하게 하려고 자기의 이야기를 기록하였다. 누가는 앞을 향하여 전진하는 데 필요하지 않는 한, 자기의 이야기를 그 어떤 장소나 사람에게 되돌아가게 하는 법이 없었다. 이처럼 성서일과 이론은 과거의 주석가들이 사도행전을 마치 한 권의 역사책으로 볼 때 만나게 되는 많은 수수께끼를 풀어준다. 그런 억측은 서구 이방 정신의 산물인데, 오랜 세월 동안 사도행전의 본질적인 유대적 성격과 사실상 사도행전이 편찬된 것은 회당의 예배를 위한 것이었다는 전례적 역할을 보지 못하도록 숨겨놓는 일에 영향을 준 것이다.

심지어 요한복음은 더 크게 도전한다. 이 책은 번갈아 가며 나를 감동시키기도 하고 또 성내게도 만든다. 나는 그 어떤 기독교 문헌보다도 더 이 책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체험한 경험의 심오함을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또 복음서 전승에 들어 있는 사실들에 관한 많은 논쟁에서, 요한복음과 공관복음서의 세부사항들(details)이 서로 조화되지 않고 서로 엇갈리는 곳마다, 진리는 보통 요한 쪽에 있다고 하는 것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요한복음서 가운데 있는 단 한마디 말도 예수가 직접 말한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다른 어떤 복음서 전승보다도 요한복음서의 본문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요한이 주는 메시지를 훨씬 더 크게 왜곡할 것이다. 제 3, 4, 5 세기의 신학적인 대 논쟁들에서, 문자주의로 이해한 요한의 말들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였다는 것과, 또 성육신 교리나 삼위일체 교리와 같은 교회 교리의 완고한 입장을 만들어 내는 데 얼마나 큰 역할을 하였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슬픔을 금할 수 없다. 이런 교리들을 논리 정연하게 만들려 노력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역사상 요한복음의 본문을 문자적으로 이해한 것이 서방 교회의 회랍적 사고를 가진 교부들과 합세하여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이질적인 신학체계를 만들어 내어 오늘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그 체계를 아직까지도 기독교 정통이라고 한다. 어느 한 사람이 하나님을 체험한 진리와 그 체험을 자세히 설명하려고 사용한 말이 가진 진리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다.

기독교인인 나를 예로 들어 말하면, 내가 체험한 예수가 나를 위한 생명의 떡이요, 생수이며, 문이고, 포도 줄기이자, 길이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의 예수가 문자적으로 자기는 그런 사람이라고 주장하였다는 뜻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서에 나오는 이른바 예수의 “나는 .....이다”(I am.....) 하는 말은 결코 예수가 문자적으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다. 예수가 그렇게 말했다는 것은 생각할 수조차 없는 일이다. 나는 제 4 복음서 안에 문자주의적인 역사의 예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말한다 해도, 나는 지금도 여전히 이 복음서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나의 신앙을 더욱 깊이 살찌워주는 [영의 양식을] 계속 먹여준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를 느낀다.

나는 제 4 복음서에서, 불붙는 떨기나무에서 계시된 “나는 스스로 있는 나다”(표준 새번역 출 3:14 참고. I am who I am.)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초대 기독교 공동체가 예수에게 적용하였다는 사실을 찾아낼 수 있다. 우리는 이것을 “나는 .....이다”하는 말에서만 아니라, 아래와 같은 두 개의 독특하고 극적인 요한의 주장에서도 볼 수 있다. 즉 요한은 “너희가 사람의 아들을 높이 들어올린 뒤에야 내가 누구라는 것(who I am)을 알게 될 것이다”(요 8:28) 하는 말과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before Abraham was, I am)는 말을 예수의 말로 돌리고 있다.

어쩌면 창세기의 칠 일 간에 걸친 창조 이야기와 요한복음서의 이야기 순서 사이에 어떤 관련이 있다는 암시 때문에 나는 흥미를 느끼게 되었다. 적어도 요한복음서는 “한 처음”(In the beginning 요 1:1, 창 1:1)과 “이제 다 이루어졌다(It is finished. 요 19:30, 창 1:21)는 것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보인다. 나는 제 6일에 창조의 일을 마치고 제 7일에 쉬었던 하나님과, 제 6일에 그의 사역을 마치고 제 7일에 무덤에서 쉬고 그 다음 둘째 주간 첫날에 새 창조를 시작하기 위하여 무덤 속에서 나왔던 예수 사이에 어떤 유사성이 있다는 것을 주목한다.

요한이 나사로를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역사적 인물로 만든 것 역시 나를 놀라게 해 준다. 요한의 나사로는 처음에 역사 안에 있었던 인물이 아니라, 누가복음서의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 속에 있었던 인물이라고 생각한다. 누가에 있는 비유와 요한에 있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린 이야기 둘 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도 듣지 않는다면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해도 믿지 않을 것이다”(눅 16:31) 하는 말에 주목하고 있다. 누가의 비유에서는 그 말이 한 경고였지만, 요한의 나사로를 다시 살린 이야기에서는 현실이 되었다. 실로 이 나사로를 다시 살린 것은 유대당국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예수의 관계를 믿게 하는 데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예수를 잡아죽이려 하는 원인이 되었다. 요한복음서에서 나사로와 예수는 둘 다 무덤에 묻혔다(요 11:17, 19:41). 두 무덤 다 입구를 돌로 막았다(요 11:38, 20:1). 두 경우 모두 마리아라는 여인이 무덤 밖에서 울고 있다(요 11:21-37, 20:1).

한 사람 나사로는 예수가 개입하여 나흘 만에 다시 살아 지상 생명으로 돌아왔다(요 11:38-44). 다른 사람 예수는 그 스스로의 힘으로 삼 일만에 부활하여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올라갔다(요 20:17-18). 예수는 “나는 ....하나님이신 분께 올라간다” 하였다. 요한은 또한 이 나사로가 베다니에 살고 있던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라고 하는데, 다른 복음서 저자들은 이 오빠를 알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요한은 상당히 세련되게 상징을 쓸 줄 알던 사람이었고, 나사로는 분명히 그의 중요한 상징들 가운데 하나였던 것이다. 그래서 요한에는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요 2:1-11),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생각(요 3:1-15)은 물론 그 밖에도 많은 상징들이 나오고 있다.

나는 또 이런 많은 표상(signs)과 긴 신학적 담화를 가진 요한복음서 전체가 원래 세례를 앞두고 있는 개종자들을 금식과 기도와 더불어 준비시키고 가르치기 위하여 고안된 7주간에 걸친 전례적 축하행사의 한 부분으로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있어서, 거기 매혹당하기는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다. 이 전례준수는 에베소에 있는 아시아 교회의 관행이었다고 생각되는데, 요한복음서도 거기서 기록되었을 것이다. 또 이런 제안은 예수가 십자가에 달린 날을 유월절 양 잡는 날과 일치시킨 것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서에서 발견되는 날자와 주간에 대한 언급에서 어떤 뜻을 찾아내려 하는 것에 상당한 근거를 두고 하는 말이다. 그래서 이 이론은 요한 1장으로부터 11장까지 한 주간에서 네 주간에 걸친 예비신자 준비교육을 이끌기 위해 고안되었다는 것을 암시해준다. 부활절 당일과 그 부활절 뒤의 두 안식일에 걸친 기쁨으로 예배자들을 인도해 주는 요한 20장-21장과 함께 요한 12장-19장은 고난주간을 위한 본문이었다. 이런 생각은 상당히 권할 만 하지만 그 이론을 변호하고 싶은 마음은 아직 없다.<sup>3)</sup> 금세기에 출판된 영어로 된 중요한 요한복음 주석과 19세기에 나온 많은 주석들을 거의 다 읽었던 나의 요한복음서에 대한 지식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sup>4)</sup> 그러나 요한복음 저자의 본래 집필의도를 밝혀주는 열쇠를 아직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서에 대한 결정적인 작품이 아직 저작되지 않았다는 것도 믿고 있다. 내 의견에 누군가 이 요한복음서를 그 원래의 유대적 배경에 두고, 원래 이 유대인 저자의 집필동기와 계획을 식별해 내어, 이런 식으로 오랜 세월 거기 숨겨져 있는 신비를 벗겨내기 전까지 결정적 저작은 나오지 못할 것이라고 본다. 이 제 4복음서의 큰 공헌은 그 잘 숨겨진 비밀을 알고 있던 모르고 있던 상관없이, 모든 세대의 모든 층의 기독교인들에게 영의 양식을 계속 먹여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주로 공관복음서의 비밀을 해명하기 위하여 거의 모든 시간을 다 썼고, 사도행전과 요한복음서를 포함시켜 연구 분석하는 데는 단지 슬쩍 지나치는 정도로 시간을 쓴 다음, 이제 나는 이제까지의 나의 분석이 제기한 예수의 생애 가운데서 볼 수 있는 특정문제들로 관심을 돌려서 이 사건들이 기억된 역사의 객관적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시켜 줄 길을 찾아보려고 한다. 나는 복음서에서 말하고 행한 것들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식별해 내려는 것보다, 이 일화들은 유대인들의 예배력과 유대인들의 성서일과 읽을거리 배경에 맞추어 특별한 유대적 방법으로 교회의 예수 체험에 관하여 기록 처리하려는 노력이었다는 것을 주장하고 싶다. 이런 접근은 거듭거듭 문자주의자들의 주장을 불안하게 뒤흔들어 놓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놀라우심(驚異) 속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길을 찾는 우리를 위하여 포스트 모던 세계의 정신영역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줄 것이다.